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

이창덕*

<차례>

1. 머리말
2. 라디오 방송의 국어교육적 의의
 - 2.1 현대 대중소통매체와 국어교육
 - 2.2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
 - 2.3 라디오 방송언어와 국어교육
3. 라디오 방송언어의 국어교육 적용
 - 3.1 라디오 방송 이해 교육
 - 3.2 라디오 방송 언어 이해 교육
 - 3.3 라디오 방송 언어 체험 교육
4. 맺음말

1. 머리말

이 글은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중매체(매스미디어) 교육과 국어교육의 접점의 하나로서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관련성을 토대로 라디오 방송¹⁾을 국어교육에 어떻게 끌어올

* 경인교육대학교

1) 이 글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 라디오 방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매체 전반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라디오 방송보다는 훨씬 더 온 영체제나 교육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아 라디오 방송으로 국한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의는 방송매체나 방송매체 언어로 확대, 적용이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것인가를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문, TV, 라디오, 컴퓨터를 비롯한 현재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국어교육에서 얼마나 수용하고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는 최근 국어교육계에서 그 논의 기회가 많아지고 이들 매체를 국어교육에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대중매체 교육 대상도 종래 국어교육계에서 다루어 온 매체언어 중심의 매체교육론을 넘어서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이는 종래의 언어와 문학 관련 지식교육에 치중되어온 국어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우리 국어교육계의 국어교육에 대한 문제 인식 때문이기도 하고 매스미디어가 국민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 이른바 그 문화화의 힘이 너무나 크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국어교과에 매스 미디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국어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기만 한가³⁾, 적용이 가능한가를 따져보아야 하고, 바람직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다양한 대중 매체들을 어떻게 국어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있어야 한다. 국어교육에 매체교육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전에 다양한 주장들

2)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에서 국어활동의 영역을 생활문화로 넓혀 규정해야 하고, 국어활동과 문화적 질서의 체계를 설명하고, 창조적 전망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래, 문학 영역을 필두로 해서 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에 이르기까지 그 개념을 단순 문자와 음성텍스트의 표현과 이해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문화의 총체적 이해로 국어교과학이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박인기(2002)에서는 '문화적 문식성'의 개념을 설정하고 있고, 최인자(2002)에서는 '다중문식성' 개념을 설명하면서 문식력을 '문자뿐 아니라 제반 매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여 원만한 의사소통과 사회, 문화적 실천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규정하고, 이런 다중문식력을 길러주는 것이 국어교육의 목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3) 국어교육 영역을 생활문화로 확대하고, 이른바 문화적 문식력이나 다중문식력 발달을 국어교육의 목표로 삼는다면, 문화적 문식력 또는 다중문식성은 종래 주장되어온 언어사용능력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문화문식성에서 언어문식성은 하나의 하위범주인지, 언어문식력(언어표현, 이해 능력) 이외 능력은 언어문식력과 전혀 다른 것인지, 그것들을 국어교과에서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우리의 국어현실과 연계해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적용에 앞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수렴되고 매체교육을 국어교육에 도입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의 국어교육학계의 분위기에서, 대중매체 등 다양한 문화를 국어교육에 적극 수용하는 데에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구 시대의 낡은 국어교육관을 가진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문화, 모든 기호(의미)의 생성(표현)과정과 수용(해석) 양상을 국어교육학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국어교육을 살리는 길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그 정도가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최근 일고 있는 국어교육 지평 확대를 위한 주장은 기존 국어교육의 한계와 문제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국어교육계의 매스미디어 교육에 대한 열풍은 지금, 여기쯤에서 한번 검토하고 앞뒤좌우를 좀 헤아리면서 열을 좀 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⁴⁾ 궁극적으로는 매스미디어 교육을 비롯한 문화교육을 국어교육에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우리가 논의하는 국어교육이 국민 공통 교육과정의 한 교과교육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고 매체교육 등 주변 영역으로 국어교육의 지평 확장이 정작 중요한 영역의 국어교육에 쏟을 힘을 분산시켜 국어교육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육이 매체교육을 성급하게 전면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본다.

국어교육에서 21세기 다양한 우리사회 언어문화를 골고루 다양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국어교육의 지경을 넓히는 것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어쩌면 우한용(2000:75) '대중문화시대의 국어교육'에서 주장하는 '언어적 인간으로 갖추어야 할 능력 전반을 포괄'하는 국어교육이 되어야 하고, 현재의 국어교육이 실제 국어현상과 분리되어 걸돌고 있는 것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4) 김창원(2002:14-19)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국어능력과 문화능력의 재개념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문화능력이 곧 국어능력이라고 볼 수는 없다. 문화능력과 국어능력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정하고, 문화능력 가운데 어느 부분을 어떻게 국어교육에서 국어능력과 연결시켜 교육할 것인가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다루어지는 국어교육이 모든 국어현상, 나아가 모든 문화현상을 다룰 수 없고, 또 다 다룰 필요도 없다는 점에 착안하면 현실 존재 양식으로서 다양하고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대중매체(또는 매체 언어)들을 얼마만큼 국어교과의 각 내용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 국어교육 수행을 보장할 것인지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 양식으로서 방송매체를 국어교육에 수용하되, 대중매체의 언어나 언어사용 원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매체 일반에 대한 교육이나 매체에서 다루는 담론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어 교과 외의 영역에서 다루거나 국어교과에서 다루더라도 그 중요도를 낮추어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룰 방송매체교육은 현장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 대상과 학습 방법을 개발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방송매체 교육을 국어교육에 도입한다면 방송언어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방송의 일반적 특성이나 방송에서 다루는 내용 등에 국어교육의 초점이 맞춰져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도 라디오 방송언어나 그 사용의 원리 등을 국어교과에서 익히고, 학생들이 라디오 방송을 직접 듣고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며, 나아가서 라디오 방송 제작 등을 해 보면서 다양한 언어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은 국어교육에서 다룰 수 있지만 반드시 국어교과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재량활동이나 특별활동을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개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펴고자 한다. 라디오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교육이 교육현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필요하지 만⁵⁾,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매체교육은 그 대중매체들 전반에 관한 교육, 나아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의 생성과 해석 과정 전반을 다루는 교육이 아니라 대중매체 언어와 언어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5) 이미 영국, 호주 등 일부 선진국에서 미디어교육을 부분적으로 정규 교육과정에서 교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다.

2. 라디오 방송의 국어교육적 의의

2.1. 현대 대중소통매체와 국어교육

인간들이 몸짓과 음성으로만 의사소통을 하던 시대에는 대부분의 의사소통을 삶 가운데서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정보나 발화상황과 직접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말로 소통했으므로 그 구성원들은 따로 현재의 국어교육과 같은 체계적인 사회제도로서 언어교육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문자가 발명되고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의사소통의 총량은 구전(口傳) 소통 시대보다는 엄청나게 확대됨에 따라 문자교육이 교육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고, 언어교육도 그에 따라서 문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모국어교육이 읽기와 쓰기 등 문자텍스트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아직 이런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 언어교육과 사회 언어 현실의 괴리현상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까지의 언어교육이 문자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문자 언어의 정형성과 그 규범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통신, 인터넷과 같은 대중 매체의 발달로 단순히 자신의 생각과 의도를 글로 표현하고, 그 표현된 것(문자텍스트)을 읽고 해석하는 단계를 벗어났다. 몸짓과 음성 언어로 국한되던 언어사용이 문자의 발명으로 인간 의사소통의 기초 한계(지금, 여기)를 극복했다면 현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과 컴퓨터와 같은 멀티미디어 매체들은 인간과 인간의 대면 의사소통의 공간 한계를 뛰어넘어 대량 다중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 녹음과 녹화 기술의 발달은 문자 텍스트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소리와 영상정보 소통의 일회성과 불확실성을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변화에 맞추어 국어교육도 새로운 언어교육 철학과 내용체계, 교수 학습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언어교육(한국 내에서는 국어교

육)도 그 영역을 단순 몸짓과 음성언어, 문자언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로 국한 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사소통 체계를 대상으로 넓히는 것은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본다. 아직도 많은 정보의 기록과 전달은 문자텍스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문자정보와 함께 그림, 사진, 영상 등 시각 정보를 함께 처리하는 멀티미디어 전자텍스트가 그 영역을 넓혀가고 중요한 위치를 점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⁶⁾

교과서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 국어교육을 넘어서서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등을 다양한 교재를 활용하는 국어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 우리 사회에서 멀티미디어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지는 소통과 그 과정에 작용하는 국어의 사용 원리와 양태를 분석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 대중매체를 통한 소통과정에서 사용되는 언어형식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문화창조자로서 그들 대중매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대중문화를 이끌 잠재력을 기르도록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본다. 매스미디어 홍수 속에서 각기 개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매스컴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매스컴을 통해서 정보를 선택적으로 얻고, 역동적으로 자신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면서 공공사회 발전에 기여할 줄 아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일은 어느 교과 영역을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 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대중매체를 국어교육에 도입하는 데 그 당위성을 인정하되 대중매체를 국어교육에 끌어오는 데는 신중하고 다양한 검토와 여러 단계의 준비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⁷⁾을 취하면서, 대중전파매체로

6) 멀티미디어 정보 소통에서 문자와 음성언어가 다른 소통 기호들과 어떤 관계인지, 관계와 차별성을 확인하는 것은 '언어'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이 언어교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다.

7) 대중매체가 언어기호뿐 아니라 음악, 영상 등 다양한 기호체계를 사용하는 복합코드체계이기 때문에 대중매체의 모든 코드를 국어교육에서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많다. 또 국어과교육에 매체교육을 도입하더라도 교육과정 개발의 세 측면, 적합성(대상 학생에게 타당하며 학생의 성장,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가), 실천가능성(교육과정 개발과 실천이 얼마나 밀

서 라디오 방송이 국어교육에 어떤 교육적 함의를 갖는지 살펴보고, 학생들의 바람직한 국어생활을 위해서 라디오 방송을 국어교육에서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고, 참여하며, 나아가 창의적으로 제작하게 할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2.2.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

라디오 방송을 국어교육과 관련시키는 논의는 방송의 광파성(廣播性)과 관련된 사회적 특성⁸⁾, 즉 공공성, 규범성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두 가지로 관점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 하나는 라디오 방송이 대중매체로서 국어사용의 공공성과 사회적 규범을 잘 지키는 바람직한 한 전범으로서 그 언어자료를 국어교재로 삼아 교육하고자 하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매체를 공적인 책임감과 분리해서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현재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대량 소통의 한 코드로 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관점이다. 기존의 방송과 방송언어에 대한 논의는 전자의 입장을 취한 것이 대부분이다. KBS한국어교육연구회(1987), 이웅백(1988), 이주행(1995), 박갑수(1996), 민현식(1999) 등이 이들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많은 매스미디어가 상업화하면서 그런 공공성을 강조하고 그 책무를 잘 감당하기만 하는가 하는 회의와 의문점들이 제기되면서 방송과 방송언어를 있는 그대로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시청자들이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교육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 신문방송학을 비롯한 최근의 사회언어학, 교육사회학 연구들에서 주장하는 것은⁹⁾ 후자의 관점이 대

접한 관련이 있으며 계획대로 실천할 수 있는가), 자율성과 전문성(교사들의 적극적 참여와 전문성을 향상을 보장하는가)을 [김재복(1997:23-8) 참조] 고려할 필요가 있다.

- 8) 방송언어의 일반적 특성을 이웅백(1988)에서는 광파성(廣播性), 동시성(同時性), 공공성(公共性), 교육성(教育性), 규범성(規範性), 품위성(品位性), 정확성(正確性), 자연성(自然性)을 들고 있다. (민현식 1999:52-3)참조. 그러나 방송언어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과 실제 방송언어가 그렇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방송제작 송출자의 입장에서 제작, 송출의 책임감을 강조하는 것과 청취자의 입장에서 방송언어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선택과 수용 태도를 논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부분이다. 국어교육계에서도 방송도 하나의 언어문화로 보고 가르쳐야 한다는 입장은 후자의 입장에 가깝다. 본고도 후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라디오 방송과 방송언어를 국어교육과 관련시켜보면 고려할 요소 가운데 그 첫 번째가 역시 라디오방송은 일반 다수 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는 매스미디어라는 점이다.¹⁰⁾ 이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 청취자가 개인이 어떤 뉴스를 들었다든지, 드라마를 들었다든지 하는 입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이 방송을 듣고 있고, 이 방송을 그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의식하면서 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1920년 미국에서 라디오방송이 시작되고, 한국에서도 1927년 경 성방송국이 개국되면서¹¹⁾ 그 이후 라디오방송이 일반인들의 언어생활에 끼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했다. 라디오가 현재 한국 사회에서 갖고 있는 정보저장과 의사소통 기능 분담 정도가 텔레비전 방송과 컴퓨터 통신 등의 등장으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 라디오 방송이 갖는 사회커뮤니케이션 기능을 아직도 무시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이는 전파와 전자에 의한 대량 정보 교환시대에도 여전히 책과 신문 등 문자 정보 저장과 소통이 현대사회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같다. 문자가 전파정보매체보다 발명이 먼저 이루어졌

9) 대중매체가 현대 사회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다양한 이론이 있다. 마셜 맥루한은 지배적 매체 기술이 문화를 결정한다는 '기술결정론'을 주장했고, 조지 거버너는 TV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도록 한다는 소프트웨어결정론, 배양이론을 주장했다. 또 유럽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지배계급이나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들의 사상과 문화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제기함으로써 '비판이론'이 형성되었다. 김우룡(1992:15-54) 참조.

10) 매스컴의 사회영향력에 대해서는 강력 효과를 주장하는 1940년대 중반까지의 탄환이론(bullet theory), 청취자, 시청자들의 개인적 인간소통이 미디어효과를 제한한다는 60년대 중반까지의 제한효과이론(limited effects theory), 미디어 수용자가 미디어를 어떻게 이용하는가에 따라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80년대 초반까지의 중간효과이론(moderate effect theory) 80년대 이후 침묵의 나선이론, 다원적 무지, 제3자 효과 등을 내세워 미디어의 사회학습기능과 의제설정기능을 강조한 강력효과이론(powerful effects theory)으로 주장들이 달라져 왔다. 김우룡(1992:55-92) 참조.

11) 국내 방송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민현식(1999:48-49) 참조

다고 해서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파정보와는 다른 특정할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보하는 것처럼, 텔레비전 컴퓨터보다 먼저 발명되고 이용된 라디오 역시 이들과는 다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사회정보소통에서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차량을 오랫동안 운전하는 운전자들에게는 텔레비전보다는 교통 방송 등의 라디오 방송이 훨씬 더 접촉시간이 많고 그만큼 영향력이 커지는 것은 라디오 방송이 가진 특성이자 강점이다. 또 하나는 라디오 방송이 FM, AM, MW 등 다양한 밴드를 활용하여 많은 채널 설정이 가능하고 이런 다양성은 종교방송, 교통방송, 음악방송 등으로 방송 내용을 다변화하여 다양한 청취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기능이 있다.¹²⁾ 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를 통한 소통에는 제작자와 수용자(라디오의 경우에는 청취자)의 사회적 관계와 방송의 목적이 대단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

라디오 방송의 또 다른 특성은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한 소리 기호를 전달매체로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는 라디오 방송이 문자와 영상을 비롯한 시각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 정보전달 체계임을 나타내 준다. 시각 기호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라디오 방송의 약점이 되기도 하지만 청각기호만을 사용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제작과 송출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청취자의 입장에서는 라디오만 있으면 자동차 안에서든, 산에서든 어디서나 또 이동하면서도 간편하게 방송을 들을 수 있고, 들으면서도 다른 작업을 수행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라디오방송을 국어교육과 관련시킬 때, 다른 매체와 달리 시각기호를 사용하지 않는 방송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라디오 방송의 매스미디어로서 강한 영향력과 음성기호(언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달하는 청각기호 중심의 매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라디오 방송을 국어교육에 도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언어생활의 영향력이나 언어의 청각기호 특성에 비추어 쉽게 그 타당성이 인정이 된다. 그

12) 채널 다양화를 통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욕구 수용은 유선방송, 위성방송 등 전파송출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편성, 채널다양성에서 라디오방송에 비할 바 못 된다.

러나 각 라디오 방송의 사회적 역할과 그 운영체계가 시대에 따라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라디오 방송의 어떤 부분이 직접적으로 국어교육과 관련이 있고 라디오 방송의 어떤 면을 다루는 것이 국어교육의 목적을 이루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변하고, 사람들이 소통하는 코드체계로서 라디오 방송이 변하고, 그 코드에서 다루는 내용들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고, 국어교육관도 변함에 따라서 라디오 방송을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의사소통의 한 코드라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그 체계를 현재 교육체계 안에서 국어교육에 끌어오는 것은 그리 간단해 보이지 않는다. 방송언어 자료를 국어교육 자료로서 사용하거나 라디오 방송매체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국어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역시 라디오 방송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력을 갖는 대중매체이고, 또한 그것이 언어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계라는 것을 인정하면 그 국어교육적 의의를 부인할 수 없다.

현행 7차 교육과정의 국어교육의 성격, 목표를 살펴보아도 라디오 방송을 비롯한 방송을 국어교육에 끌어오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이는 점이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 교과를 '국어'를 교육의 본체(substance)로 삼아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국어사용 활동을 존중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교과라고 규정하면서 하면서 '국어' 교과 교육의 목표 전문에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발전과 민족의 언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 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

력을 기른다.

-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7차 교육과정 국어 교과교육목표 전문에서는 '언어활동 이해'와 '국어문화 이해'를 강조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은 우리 사회의 언어활동의 한 범주이며 국어문화의 구성 요소라는 두 가지 점에서 국어교육 목표와 관련된다. 세 가지의 하위 목표들이 모두 라디오방송 이해와 관련이 있지만, 나.에서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부분은 직접적 관련이 있다. 구체적인 국어사용의 하나로서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는 국어 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힐 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에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국어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 목표가 국어교육의 목표에 귀결된다. 국어교육의 목표와 관련되는 국어사용으로서 라디오방송을 볼 때 몇 가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라디오 방송은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매스미디어를 사용하는 언어활동이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라디오 방송은 교육의 산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구성요소로서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사회의 반영이면서 우리 사회의 구성요소이다. 둘째, 라디오 방송은 그 자체가 우리 사회 문화이기도 하지만 사회구성원들을 사회화, 문화화하는 도구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사회가 매스미디어를 결정하는 것인지, 매스미디어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인지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라디오 방송은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역동적 언어활동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의식과 행동 양식)를 반영하고 또 구성원들의 삶(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도구라는 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일반 대중이 대중매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받거나 조종되는 피동적인 존재만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현재 우리 사회의 라디오 방송이 국어사용의 중요한 한 양식으로서 학생들의 언어생활에 직접, 간접으로, 또는 긍정적

으로,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사회의 인정받는 영향력이 큰 관습적 존재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그 교육적 의의가 크다.

김대행(1997:9) '21세기를 대비하는 국어교육의 지향과 과제'에서 '다쳐올 사회의 다양성'과 현행 학교교육의 사회현상과 분리현상을 지적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쏟아지는 미디어 언어들에 대해서도 주관을 뚜렷이 갖추고 사회의 가치와 개인의 가치를 아울러가며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반응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길러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인기(2000)에서는 '미디어텍스트의 사회, 문화적 기능'을 강조하면서 '미디어텍스트의 국어교육적 변용을 통해서 국어교육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학생들이 다양한 현실 세계의 국어현상에 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즉 모든 매체의 모든 내용을 학교 국어교육에 끌어들이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라디오 방송을 국어교육에 접목할 때 유의할 점들을 짚어보고 라디오 방송 국어교육의 가능한 그 방향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라디오 방송의 특성과 국어교육의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 방법, 평가 등의 국어교육체계를 생각할 때 복잡하고 다양한 연계 가능성들이 제기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순히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을 붙여서 하나의 복합어 '라디오방송국어교육'을 가지고 생각해 보기로 한다. '라디오방송국어교육'이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라디오를 방송을 통한 국어교육'이다. 그리고 다음이 '라디오 방송에 대한 국어교육'이다. 그 다음이 '라디오 방송을 잘 하게 하기 위한 국어교육'이다.

(1)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국어교육

'라디오 방송을 통한 국어교육'은 다시 '라디오 방송을 청취함으로써 얻어지는 간접 국어교육 효과'와 '라디오 방송이라는 도구를 사용한 직접적인 국어 관련 교육'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¹³⁾ 1952년 문교부

13) 방송을 통한 각 교과목의 교육은 반드시 국어교과만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들이 방송이라는 흥미 끄는 매체를 통해서 배우게 한다면 기존 교실 수

라디오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한 '라디오 학교를 통한 교육' 가운데 국어과 교육은 라디오 방송을 사용한 직접 국어교육이다. 방송대학교 국어교육과 학생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국어과 과목들을 수강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EBS 등 교육텔레비전에 그 자리를 거의 다 넘겨주기는 했지만 라디오 방송을 통한 직접 국어교육은 그 가능성과 활용 여지를 여전히 남겨두고 있다. 현재 운용되는 프로그램 가운데 '당신은 우리말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바른말 고운말', '쉽고 바른 우리말' 같은 것은 그 운용시간이 짧기는 하지만 라디오 방송을 통한 직접 국어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텔레비전이나 컴퓨터와 같은 영상을 함께 사용하는 좀더 강력한 매체 때문에 라디오를 사용한 국어교육은 구시대적 방법으로 여기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라디오 방송이 어디까지나 음성기호를 바탕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기호를 제외한 순수 음성기호만을 특성을 강조한 훈련은 라디오방송을 통한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2) 라디오 방송에 대한 국어교육

'라디오 방송에 대한 국어교육'은 라디오 방송이라는 매스미디어 매체를 국어교육의 교육내용으로 삼아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는 라디오 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라디오방송을 하나의 문화로 보고 문화교육의 하나로 실시하는 '라디오방송(문화)교육'과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언어를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방송(언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라디오 방송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체교육으로서 '라디오방송(문화)교육'이 과연 국어교육이 담당할 영역인가 하는 점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매스미디어교육의 현실적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교육을 국어 교과에서 반드시 담당해야 한다는 것은 재량활동이나 특별

업 교재와 교구를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남병필 역(1994) <영상에서 발전학습>에서는 TV를 교육자료로 삼기보다 TV를 교육매체로 삼아, 15년간 일본 아이치 현(愛知縣) 고로모우라(衣浦) 소학교에서 실시된 도덕과, 사회과, 자연과의 성공적인 방송학습을 소개하고 있다.

활동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보다 더 강한 설득력을 갖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 하지만 라디오 방송이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 국어교육의 목표가 언어 형식뿐 아니라 국어사용자의 환경과 맥락까지도 고려하는 의사소통능력까지 포함하는 능력이라면 라디오방송교육도 국어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방송을 제대로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며, 기존 정보와 통합하여 미래의 삶을 개척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표현능력을 학생들이 가지도록 하는 것은 매스미디어 시대의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라고 보고, 그 능력을 국어교과에서 길러주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다음으로 라디오에서 방송되는 언어에 초점을 맞추는 '라디오방송(언어)교육'은 종래 '매체 언어 교육론'에서 매체를 '라디오 방송'으로 선택할 때 이루어지는 국어교육이다. 학생들이 라디오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그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며 나아가 적극적 청취자로서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국어교육이 담당할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학생들이 현존하는 언어생활의 다양한 양상에 적용하고 나아가 창의적 언어문화를 만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방송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제적으로 반응하게 도와주는 것이 국어교육을 담당할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다.

(3) 라디오 방송을 하기 위한 국어교육

'라디오 방송 국어교육'의 마지막 갈래는 '라디오 방송을 잘 하게 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방송제작국어교육'이다. 방송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거나 앞으로 방송인이 되려는 사람이 이런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필요한 교육 내용과 방법의 구안은 교육 담당자의 몫에 틀림없다. 라디오 방송을 잘하는 사람을 기르는 것이 국어에 대한 지식과 국어 관련 기능 훈련 등 국어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지만 방송하는 사람들이 방송을 잘 할 수 있도록 언어사용 측면의 지식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기능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은 분명 국어

교육이 담당해 해야할 몫이다. 또 전문 방송인이 아니라 일반 학교의 학생들도 라디오 방송에 직접 참여하거나 방송을 직접 제작해 봄으로써, 즉 라디오 방송을 제작과 송출 과정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라디오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언어문화와 언어사용 과정을 등에 대한 이해를 좀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할 수 있다.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경험은 라디오 방송을 이해하는 데 좀더 다른 의욕과 인식을 제공할 것임에 틀림없다. 이는 비단 라디오 방송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이나 신문 등 다른 대중매체를 학생들이 직접 제작해 보는 과정을 거치게 함으로써 매스미디어 이해와 참여 능력을 높여서 국어사용에 적극적 관심을 갖게 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어교육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에 접근토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상에서 다루어 본 세 가지 '라디오방송국어교육' 가운데, 국어교육의 현실로 볼 때 우리는 대중매체이론으로서 라디오방송 교육이나 방송인 언어교육까지 정규학교의 국어교육이 모두 담당하는 것은 어렵다.¹⁴⁾ 라디오 방송이나 일반 대중매체에 대한 교육을 절대 다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국어 교육의 정체성이나 현 교육여건에서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면 '방송언어에 대한 교육'을 방송매체 국어교육의 중심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라디오방송을 국어교육에 도입한다고 단순히 라디오 뉴스를 듣고 그 내용을 정리해 본다든지, 라디오 방송국을 견학한다든지 하는 것이 라디오방송국어교육이라고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라디오방송국어교육은 우리 사회의 문화와 방송, 방송문화에 대해서 가르치되 어디까지나 교육초점은 방송언어의 사용 원리와 방송에서 사용되는 언어에 대한 다 단계의 언어 활동 경험의 체계화를 통한 언어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여기서 다단계라 함은 방송언어 내용의 1차 듣기, 이해하기 단계뿐만 아니라, 그 언어가 사용되는 맥락, 제작 송출자의 입장에 따른 차이 이해, 청취자들의 반응 양태, 비판

14) 이들 방송매체론이나 방송인교육론 등은 국어교육의 확대선상에서 넓은 의미의 국어교육학 연구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방송학이나 국어교육학의 공동연구도 필요하다고 본다.

적 이해와 수용의 방법들, 내가 직접 방송(간단한 뉴스 같은 것)을 제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내용 선정, 대상 선정, 관점 결정, 시간 설정 등의 방송설계까지 생각하는)도 길러주는 여러 단계의 여러 영역에 관련되는 체계적인 라디오 방송 교육을 말한다.

2.3. 라디오 방송언어와 국어교육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라디오 방송 국어교육은 여러 가능 영역 가운데 '라디오 방송 언어에 대한 교육'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국어교육의 입장에서 보면 그 효율성이나 실현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언어가 언어 자체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사용되고,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화해 온 것이어서 언어를 연구하고 가르칠 때, 그 사회나 사회 구성원을 완전 분리하기는 어렵다. 방송은 그 사회의 반영, 사회언어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도구이며, 사회언어를 이끌어 가는 존재라는 점에서 방송언어 교육은 우리 언어문화의 반영이라는 측면과 우리언어문화의 창출과 선도라는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방송언어가 그 시대의 사회와 언어 문화를 반영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방송인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일반대중이 사용하는 언어와 차이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방송인 역시 그 사회의 일원이며 그 시대 그 사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영향을 많이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 주로 강조되지만). 그러나 방송을 진행하거나 방송에 직접 출연하는 사람들의 언어가 그 사람들의 창의적 언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회 언어문화의 영향을 받는 언어라는 점은 확실하다. 국어교육에서 방송언어를 다룰 때 이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작자의 언어, 청취자의 언어, 진행자의 언어, 그리고 이들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의 언어문화를 고려하면서 방송언어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둘째, 방송이 그 시대의 중요한 문화화의 도구이며, 문화창조자라는 점에서 그 시대 언어문화의 창조자이면서 교육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

다. 방송은 단순한 문화의 반영일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대중문화를 형성해 가는¹⁵⁾ 강력한 작용 인자이다. 국어교육이 방송(방송언어)을 다룰 때, 방송 자체를 문화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송의 문화 창조 기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방송에서 사투리가 자연스럽게 사용되고, 인기 연예인이 한 품격 낮은 우스개 소리가 전 사회에 유행어가 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면서 기존 방송언어의 규범을 파괴하거나 무시하려는, 적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은 방송언어의 문화화 기능을 고려할 때 우려되는 요소이다.

기존 방송언어연구에서는 공공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기준들을 강조한 것이 많다. 김상준(1990:9-16)¹⁶⁾에서는 '방송언어'를 '방송을 통해 표출되는 모든 말'로 규정하고, 일상언어와 상대적 개념으로서 방송언어를 '일반인이 아닌 방송인(아나운서, 기자, 프로듀서, 성우, 텔런트를 비롯한 전문방송인과 전문 리포터, 통신원까지 포함)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말'로 규정하고 방송인이 방송에서 사용하는 말의 공통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방송언어의 조건으로서 가. 표준어라야 한다. 나. 가능하면 쉬워야 한다. 다. 시청자(청취자) 중심의 경어를 사용한다. 라. 품위 있는 말을 써야 한다. 마. 지나친 수식어를 피한다. 바. 음

15) 지금까지 방송이 우리 사회에 존재하면서 갖는 문화화의 기능은, 사회 구성 집단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시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오락거리를 제공하는 등 방송이 갖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일반대중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관심을 현실과 분리, 오도하는 TV를 바보상자라고 부를 만큼의 부정적 측면도 많았다. 일제 강점기 경성방송국부터 1980년대 후반 군사독재정권이 무너지기까지 방송이 국가정책 홍보나 권력자의 정권유지의 중요한 도구로 이용한 관 주도문화, 1959년 상업부산 라디오방송 개국부터 1995년 개설된 홈쇼핑 등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의 확대로 이어진, 공공성보다는 광고주나 제작자의 상업적 의도에 좌우되는 저질 상업주의문화, 방송제작자들이나 광고주 등 특정 집단이 방송에 영향력을 사용함으로써 자신들이 일반대중과는 다름을 강조하는 특권문화 등은 다중 매체 시대에 방송매체 수용자들이 경계해야 할 문화들이다. 텔레비전에 나왔다는 것만으로 특정인이 유명 인기인, 돈 잘 버는 식당이 되고, 인기 방송 프로그램의 작가나 출연자라고 해서 거액을 요구한다든지, 방송 프로듀서들이 일반인들이 우상으로 삼는 사람들의 상전 역할을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대중매체로서 방송이 만들어낸 부정적 문화이다.

16) KBS 아나운서실 한국어연구회 편(1990) <아나운서 방송교본> 1. 방송언어의 특성 참조.

운의 생략이 구어적이다. 사. 감탄사의 사용을 피한다. 아. 조사와 용언에 제약이 많다. 자. 수(數)의 표현에 조심한다. 차. 논리적 문장이라야 한다. 그리고 방송언어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조건으로 표준어 중에서도 표준 발음 사용을 강조하면서 음의 장단, 모음 발음, 자음 발음, 받침 발음, 소리의 동화, 경음화와 격음화 음운첨가에 특별히 유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라디오 방송이 어떤 면으로 보면 언어적 기호와 함께 청각기호들(음악이나 음향들)이 많이 사용되는 복합기호 체계이고, 그 기호의 생산과 해석의 복잡한 과정과 관련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둔다면 간단히 방송언어의 특성은 무엇이라고 이런 몇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라디오 방송은 이른바 방송편성을 통제하는 방송제작자(super-narrator)의 여러 기준에 따라서 기획되고, 설계되며, 제작되며, 그 제작된 것을 아나운서나 진행자가 말로 전달하는 것이어서 누구의 언어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방송에서 다루는 하위 장르들(뉴스, 드라마, 스포츠 중계, 대담, 광고 등)에 따라서 그 언어적 특성 언어 전개구조 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간단히 방송언어는 이렇고, 또 이러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각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내용을,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송하는가에 따라서 방송언어는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므로 방송언어에 대한 국어교육은 이런 다양한 변인들의 역동적인 작용관계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디오 방송에서 다루는 하위 프로그램 범주들¹⁷⁾의 생산 과정과 진행 구조들을 이해하고, 그 언어들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그들 언어의 생

17) 방송에서 사용하는 하위 범주들은 뉴스, 드라마처럼 고정 양식을 유지하는 것도 있지만, 새로운 장르들이 시대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한다. '칭찬합시다'와 같은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 하나의 방송의 하위 범주를 형성하면서 또 다른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생산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 또 다른 유형의 프로그램 장르가 출현하기도 하고, 이미 존재했던 양식이 없어지기도 하는 '장르 역동성'이 존재한다.

산과정, 진행 구조 등을 이해함으로써 방송언어를 좀더 쉽게 이해하고, 방송언어 사용체계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방송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또 나아가서 창조적으로 언어문화를 개선하고 재창조해 나갈 힘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어교육이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본다. 이들 각종 방송 프로그램들의 내부 구조와 외부 사회구조를 제대로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이 반드시 국어학자나 국어교육학자의 몫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들, 그 언어를 둘러싼 맥락에 관한 지식을 학생들이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구체 자료들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습득이나 발견 방법론을 연구하는 것은 국어학이나 국어교육학에서 담당해야 할 몫임에 틀림없다.

3. 라디오 방송언어의 국어교육 적용

라디오방송을 국어교육에 적용할 때 방송운영체제나 방송매체의 특성 자체보다는 방송언어와 그 언어를 둘러싼 사용맥락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단순 지식 교육보다는 방송과 방송언어의 이해로부터 활동까지의 영역별 다단계 방송언어교육이 이루어져한다는 점을 앞에서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 라디오 방송 이해 교육, 라디오 방송언어 이해 교육, 라디오 방송 언어 활동 교육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방송이해와 방송언어 이해는 강의식 교육방법이¹⁸⁾ 채택될 수도 있고, 전문가의 해설을 등을 취재하거나 녹화해서 듣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 학생 각자 서적이나 인터넷 등의 자료를 통해서 조사한 것을 발표하는 형식일 수도 있고, 그밖에도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이 개발, 운용될 수 있겠다. 라디오 방송언어 활동은 기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 스스로 방송을 만들어보는 것이므로 라디오방송 이해교육과는 다른 차원의 것이 될 것이다. 이는 학생들을 전문 방송가로 만들거나 학생들이 전문가와 같은

18) 방송언어 교육의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론은 본고에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다른 연구로 미루기로 한다.

방송을 만들기는 어렵더라도 학생들이 방송과 방송언어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탐구하도록 하는 좋은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1. 라디오 방송 이해 교육

(1) 방송 제작 과정이해

라디오 방송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라디오 방송이 제작되는 기본 과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물론, 이것이 방송매체교육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라디오를 들으면서 그 언어(내용이나 형식)를 아나운서 등 프로그램 진행자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방송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과 그 언어가 방송 진행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방송국의 설립 취지, 방송제작 책임자의 방송국 운영 방침, 그에 따른 여러 프로그램의 기획과 설계, 그리고 취재기자와 편집진의 여러 처리과정을 통해서 스튜디오에 방송내용이 전달되고, 그 내용이 프로그램 진행자의 입을 빌어 진행된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방송의 여러 단계의 제작과정에 관여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이해하고 고려하면서 듣는 사람보다 방송이해, 방송언어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과 학생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방송제작과정 이해를 위한 교육을 선택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방송 프로그램(성격, 구성요소, 주제, 내용, 진행과정) 이해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라디오를 켜서 채널을 돌려서 방송을 듣기로 결정하는 시간에 자신이 듣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의 내부 전개구조(내용, 전개과정, 전개 방식 등) 외부 전개구조(제작자, 참여자, 청취자의 특성, 목적, 설계와 운용과정 등)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면 그 방송 이해가 훨씬 쉬워질 뿐 아니라 청취자로서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일반 청취자 개인으로서는 개별 프로그램의 이런 구조를 알기 어려우므로 방송교육시간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어떤 방송을 들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 관련 지식을 알고 있으면 그 프로그램 이해가 훨씬 쉬워지고, 방송되는 언어 내용 이해도 좋아질 것이다.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 그 다루어지는 내용뿐 아니라 그런 내용 전달을 위해서 함께 사용되는 음악이나 음향 효과 등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방송의 전반적 이해가 훨씬 좋아질 것은 틀림없다.

(3) 방송 프로그램 참여자(제작자, 진행자, 출연자) 이해

또 방송프로그램 참여자(제작자, 진행자, 출연자 등)에 대해서, 즉 그의 전공, 인간관계 성격 등에 대해서 안다면 그 방송 프로그램에 친근감을 가지고 접할 수 있고, 이는 그 방송과 방송언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방송제작자들을 알면 같은 내용이라도 서로 다르게 방송이 만들어지고, 전혀 다른 어법을 사용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 방송 진행자나 출연자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그들이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좀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은 당연하다. 교육현장에서 상황이나 여건이 갖추어지면 선택적으로 방송 참여자 이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전반적인 방송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광고방송을 들을 때 광고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어떤 다큐멘터리 방송에서 그 프로그램을 기획한 사람을 아는 것은 전반적인 방송 이해와 적극적 태도를 갖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방송 수용자로서 자신(청취자) 이해

많은 방송 수신자, 수용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대상으로 취급되는지, 방송 수신 시 '이 방송을 보고 듣는 나(나를 포함한 청취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청자 교육과도 같은 것인데, 시청자들은 어떤 부류로 나뉘어지며, 그들 집단은 방송에서 어떤 대상으로 다루어지는가에 대한 지식은 방송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방송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 어떤 의

도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지며, 그 내용을 청취하는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를 아는 것은 방송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방송 제작자가 기대하는 청취자 집단에 자신이 속하는지 안속하는지 아는 것은 방송을 어떤 태도로 듣고, 이해하는가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

3.2. 라디오 방송 언어 이해 교육

‘언어를 본체로 삼아 가르치는 교과’가 국어 교과라면 라디오 방송 교육에서도 언어 교육은 그 전체 방송 교육 가운데 중심에 와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언어활동의 기본 지식을 익히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려면 라디오방송의 언어와 언어활동에 대한 지식을 익히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활동의 모든 지식을 한꺼번에 익힐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 언어활동으로서 라디오 방송 언어 활동을 통해서 언어 관련 지식을 익히는 것은 학습자의 사용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방송사별로, 방송 장르별로(장르 안에서도 개별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자 별로 달라지는 언어 특성을 이해하고 사용 원리를 익히는 것은 국어교육적 의미가 크다.

(1) 방송사별 언어특성 이해

학습자들이 언어 사용자들의 집단 특성에 따라서 언어사용 형식이나 사용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구체적 언어 이해와 표현에 중요한데, 방송사들에 따라서 다루는 내용도 다를 뿐 아니라 사용하는 언어 형식이나 언어사용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방송이나 기독교방송 등 종교 방송이 다른 일반방송과 언어가 다르고,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의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언어를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게 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내에 있는 많은 방송들을 유형별로 나누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방송사의 성격에 따라 판이하게 다르다

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방송의 선택뿐 아니라 언어 이해와 사용에 중요한 경험이며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다.

(2) 방송 장르별 언어 특성 이해

방송언어가 뉴스, 드라마, 광고, 다큐멘터리 등의 하위범주인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그 쓰임새가 차이가 많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기존 방송언어텍스트 연구가 대략 이런 장르별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만큼 방송장르별 언어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방송 국어교육도 이런 차이에 주목하고 학습자들이 그 장르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차이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

(3) 방송 진행자별 언어 특성 이해

방송언어가 프로그램 장르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지만 같은 장르라도 진행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언어는 사용역(register)에 따라 규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실제 사용은 각 개인이므로 개인차를 무시할 수 없다. 개인의 언어 특성이 프로그램 특성과 어떻게 어울리며, 진행 언어를 통해서 나타나는 진행자의 어떤 점이 청취자들에게 호소력과 매력을 갖게 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국어교육상 가치도 크다고 본다. 같은 방송 진행자라도 아나운서와 기자의 어법이 다르고, 출연자들도 그들의 직업이나 사회적 역할, 성격 등의 차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언어와 어법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작업일 뿐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중요하다.

3.3. 라디오 방송 언어 체험 교육

라디오 방송 관련 지식, 라디오 방송 언어 관련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디오 방송 국어교육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이 라디오를 실제로 즐겨들으면서 언어생활을 즐기고, 나아가 라디오 방송에 참여도 하고, 여건이 되었을 때 학습자 스스로 간단한 라디오 프로그램

을 제작도 해 보는 것이다. 백문이불여일견하고 백견이불여일행(百聞而不如一見 百見而不如一行)은 라디오방송국어교육에서도 통하는 진리이다. 새롭고, 재미있고, 유익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늘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수 받고, 탐구하도록 강요받는 교육이어서는 안 된다. 무엇에 대해서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知者不如好者하고 好者不如樂者)를 라디오방송국어교육에서도 생각해야 한다. 학생들이 라디오 방송에 대해서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듣기를 좋아하며, 날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즐겨 들으면서 (기존의 지식을 바탕으로) 국어사용 능력이 좋아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학교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라디오 체험을 하도록 할 것인가는 현장 여건과 상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라디오 듣기(비판적으로 이해하기까지 포함), 라디오 참여하기, 라디오(방송) 프로그램 직접 만들어 보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라디오 방송 듣기

라디오 체험의 가장 보편적이고 기초적인 단계가 라디오 듣기이다. 여기서 '라디오듣기'란 단순히 라디오소리를 듣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청취자(학습자)가 자신의 목적에 따라 방송국 고르기, 프로그램 고르기, 프로그램 이해하기(토픽 이해, 전개 구조 이해, 진행자 이해, 참여자 이해, 청취자 이해하기), 프로그램 내용을 주체적으로 판단하면서 수용하기, 초점 바꿔 들어보기, 관점 바꿔 생각해 보기 등이 포함된 복잡한 과정이다. 학습자들로 하여금 그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무심코 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목적을 가지고, 즉 삶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들 대중매체 프로그램들을 선택하고,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을 선정하게 하고(왜 선정하는 이유를 따져보게 하면서), 적극적으로 내용과 진행과정, 진행자의 특성 등을 파악하면서 듣게 하고, 그 프로그램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면서 방송제작자나 송출자, 진행자와는 다른 관점으로 방송 내용을 생각해 보

게 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단순히 듣는 활동만 아니라 쓰기와 연계해서 자신의 아이디어 써보기 등의 쓰기 활동이나 그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말하기 활동을 연계해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라디오 방송 참여하기

라디오 방송 교육은 학습자들이 라디오 듣기 단계를 벗어나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수도 있다. 참여하는 방법은 방송 프로그램에 따라 청취자로서 직접 전화 등으로 진행에 참여하거나 전화, 엽서, 팩스 보내기를 통해서 자신이 진행자나 다른 시청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전달해 주도록 요청하는 행위를 해 보도록 할 수 있다. 현재 라디오 방송에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이런 활동은 방송사 측에서 보면 그 자체로 시청자의 참여의식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만 수용자 입장에서 보면 언어 교육적 효과도 크다.

방송 참여는 직접 참여는 아니어도 프로그램 제작에 영향 끼치기(비판 의견 보내기, 홈페이지 의견 올리기 등)를 통해서 참여할 수도 있다. 이는 단순 진행 참여가 아니라 방송사의 기획 의도나 프로듀서 등 제작 책임자들의 방송 제작 방향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상당한 사전 공부가 필요한 어려운 과정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방송 참여하여 영향을 끼치려면 상당한 관련 지식을 익히고 언어지식과 사용 능력도 갖추어야 하므로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이런 활동을 권장하는 것은 언어지식 측면만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서 언어활동이라는 점에서 국어교육상 의의가 크다고 본다.

(3) 라디오 방송 만들기

여건이 허락하면 라디오 방송 체험 가운데 가장 강력한 교육활동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직접 만들어 보기이다. 이는 교실에서 간단히 녹음기를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학교방송 시설을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다. 실험을 위한 방송 제작이지만 방송을 제작하려면 방송에 대한 다각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려면 많은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라디오 방송 관련 지식 교육은 이미 전제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직접 듣고 평가해 봄으로서 자신들의 언어 능력과 습관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를 줄 수 있다. 이는 기존의 방송프로그램을 듣거나, 청취자로서 극히 일부만 참여하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송 프로그램 모방하기, 패러디하기 등의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다. 학습자들이 부족한 여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순전히 창의적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향상되고, 방송 내용이 일반 대중에게도 관심 있는 것이면 기존 방송에 송출을 시도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기존 대중매체에 자신들이 만든 프로그램이 방송이 된다면 그 제작 과정에 참여했던 학습자들은 다른 어떤 언어활동보다도 강한 언어 학습 효과를 경험할 것임에 틀림없다.

4. 맺음말

최근 각 방송사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생기고, 인터넷 방송국들이 개설되면서 방송의 장르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통합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각 방송국의 홈페이지에서 TV나 라디오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되었으며 지나간 TV나 라디오 프로그램도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선택해서 다시 볼 수 있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청취, 시청하던 입장을 벗어나 시청자가 반응하는 쌍방향 방송이 생겨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라디오 방송과 다른 방송 매체를 구분해서 라디오 방송만의 국어교육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본고에서 논의했던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은 각 방송매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다른 방송매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논의라고 생각한

다. 방송과 인터넷이 우리 사회, 특히 언어생활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이 그 영향하에서 주체적으로 매스컴을 이해하고 판단해서 '창의적이고 바람직한 국어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어교육이 매체교육이나 매체언어교육을 이제 더 이상 미룰 계제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대중매체교육의 필요성이나 당위성 때문에 "'국어'를 바탕(substance)으로 하는 국어교육"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교육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고, 대중매체교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현장에 적용할 것인가는 좀더 세밀한 연구와 치밀한 준비, 조심스런 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중매체 국어교육이 대중매체 교육 자체가 되어서도 안 되고, 학생의 수준이나 관심, 능력 등이 고려되지 않고, 구체적 적용 방법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저 '방송을 들어보는' 국어시간을 허비하는 교육이 되어서도 안 될 것이다. 대중매체 국어교육은 대중매체와 그를 둘러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되, 그 매체에서 각 내용들을 다루는 관점이나 거기에 사용되는 언어의 사용 원리나, 매체 언어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매체언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나아가 대중매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대중매체로서 방송을 시험적으로 제작도 해보는 수준까지 다단계의 발전이 가능하도록 발전적 지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라디오 방송을 국어교육에 접목하는 방법론을 논하면서, 방송이해 교육, 방송언어이해교육, 방송언어 활동 교육으로 층위를 나누고, 방송언어 활동교육은 방송듣기, 방송참여하기, 방송 만들어보기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음을 밝혔다. 현장과 개별학생의 특성에 맞게 각 단계의 교육은 수많은 구체적 방법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고, 앞에서 논의한 단계나 방법론이 연계되거나 통합되어서 운영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대중매체(언어)교육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은, 매체 언어교육이 자칫 학생들의 언어생활을 풍성하게 하고, 긍정적 태도를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주기보다는 비판을 위한 비판 교육에

치우쳐, 방송을 통해 정보를 얻고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언어교육, 방송과 방송언어 지식 전수보다는 학생들이 방송언어 교육을 통해서 자신들의 관심과 능력에 따라 우리 언어생활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 가는 즐거움을 주는 교육이 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방송매체(언어)교육은 단지 '시간 순서에 따라 말해 봅시다', '인과관계를 지어서 말해 봅시다' 식의 새로울 것도 없고, 따분하고, 실제 능력향상이나 삶의 개선에 도움되지 않는 현장의 말하기 교육, 학생들이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은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마지못해 들어주는 듣기 교육과 같은 국어시간을 허비하는 국어교육의 바람직한 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하기, 듣기의 대안은 쓰기와 연계한 통합적 교육도 가능할 것이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일방적 지식전달보다 자신들이 흥미 있어 하는 방송을 직접 보고듣기를 좋아하고, 방송에서는 교과서보다는 새로운 내용이 많으며, 방송을 잘 이용해서 지도하면 그들의 삶을 효과적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여러 교육적 가치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방송교육, 방송언어교육은 현 국어교육의 보완책이거나 또 다른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방송언어교육은 종래의 규범적이고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확한 발음과 틀림없는 문장, 효과적인 표현 방법 등의 교육을 강조하는 방송국의 아나운서 훈련과 같은 방식도 필요하지만, 학생들로 하여금 방송언어 속에 드러나는 우리 문화, 우리의 언어사용 방식, 방송 언어의 특성 등을 익히 알고, 현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어사용의 한 존재 양식으로서 방송언어의 적극적인 수용자로서, 소비자로서 방송에 반응하면서 우리 언어 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여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각 급 학교 교육 현장에서 방송언어교육(선택, 이해, 수용, 참여, 제작 포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국어교육학의 입장에서 구체적인 적용 방법론의 연구가 좀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겠고, 연구자들은 현장 교사들과 협동으로 학생들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수업기법들

을 개발하고,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며, 장기간에 걸쳐 방송(언어)교육이 국어교육 목표 달성에 참으로 기여하는 방법인지 인내력을 가지고 평가, 검토하면서 개선책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제 대중매체를 국어교육에 본격적으로 접목시키려는 시도하는 단계이므로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고, 한 번 적용해 본 것이 완벽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연구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 모두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 적용과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등 기존 매스미디어 뿐 아니라 인터넷 등 뉴멀티미디어를 통한 정보소통이 우리 사회 기능 부담량을 점점 높여 가는 이때에 이들 각 영역에 대해서도 국어교육이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실질적인 국민 언어생활에 국어교육이 기여하도록 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국어교육학계의 책무가 크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현 국어교육계의 위기임과 동시에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도전의 기회라고 믿는다.

〈참고문헌〉

- 김대행(1995), 국어교과학의 지평,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대행(1997), "21세기를 대비하는 국어과교육의 지향과 과제," 〈21세기 국어과 교육의 지향과 수준별 교육과정〉,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진(1999), "국어교육의 대중문화 수용을 위한 시론," 국어교육연구 제5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용재(1997), "대중매체 문화의 국어교육적 함의", 〈한국초등국어교육〉13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김우룡(1992), 커뮤니케이션 기본이론, 나남출판.
- 김재복, 이경환, 허경철(1999), 초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제7차 교육과정9 교육부고시 제1997-15호, 교육과학사.
- 김정자(2001), "텔레비전 뉴스의 비판적 시청과 국어교육적 함의", 국어교

- 육연구 8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김창원(2002), "국어교육과 문화론"한국초등국어교육 제20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나정순(2001), "매체의 활용과 국어교육", 국어교육연구 8집,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 남병필 역(1994), 영상에서 발전학습 - 일본 아이찌현(愛知縣) 고로모우라(衣浦)소학교 편, 형설출판사.
- 민현식(1999), "방송언어론", 화법연구1: 국어화법과 방송언어, 한국화법학회.
- 박갑수(1996), 방송언어론, 집문당.
- 서정섭(1999), 언론과 언어, 북스힐.
- 박영순 편(2002),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박인기(1997), "국어교육학의생태학적 지평과 발전 전략", <한국초등국어교육>13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박인기 외(2000), 국어교육과 미디어 텍스트, 삼지윈.
- 박정순(1997), 대중매체의 기호학, 나남.
- 안정임, 전경란(1999), 미디어교육의 이해, 한나래.
- 이강엽 외(2002), 디지털 시대의 국어과 수업모형, 평민사.
- 이도영(2001), "신문언어사용의 원리와 국어교육", 한국초등국어교육 제19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도영(2002), "음성언어교육과 문화창조", 한국초등국어교육 제20집,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 이용백(1988), 방송과 언어, 일조각.
- 이주행(1995), "방송출연자의 언어양상", 국어교육89,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인제 외(1997),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 교육부연구보고 CR97-2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 장상호(1997), 학문과 교육(상) - 학문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출판부.
- 최병우(2002), "멀티미디어와 국어교육", 박영순 편(2002), 21세기 국어교육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 최영환(1997), "매체의 변화와 언어기능교육의 역동화", 국어교육98,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인자(2000), "언론매체와 국어교육", 대중문화시대의 국어교육 - 2000한
국국어교육연구회 가을학술발표대회,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최인자(2001), "비판적 대중매체 교육과정 연구", 국어교육학연구 13집, 국
어교육학회.
- 최인자(2002), "다중문식성과 언어문화교육", 국어교육109, 한국국어교육
연구학회.
- 최정호, 강현두, 오택섭(1994), 매스미디어와 사회, 나남출판.
- 최현섭(2001), "국어교육학의 정립과정 고찰", 한국초등국어교육 19집, 한
국초등국어교육학회.
- 한국기호학회(1997), 삶과 기호, 문학과지성사.
- KBS한국어교육연구회(1987), 아나운서 방송교본, 한국방송공사.
- 움베르토 에코(1979)서우석 역(1985), 기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 Elizabeth Bates(1976), *Language and Context*, New York: Aca-
demic Press.
- Martin J. Malone(1997), *Worlds of Talk*, Cambridge: Polity Press.
- Michael F.D. Young(1998), *The Curriculum of the Future*,
London: Falmer Press.
- Muriel Saville-Troike(1989), *The Ethnography of Communication*
- an Introduction -, Basil Blackwell Ltd.
- Stephen W. Littlejohn(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
tion*, - first edition -,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

〈초록〉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

이 창 덕

이 글에서는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대중매체(매스미디어)와 국어교육의 접점의 하나로서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그 관련성을 토대로 라디오 방송을 국어교육에 어떻게 끌어올 것인가를 논의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매스미디어를 국어교육에서 적극 수용하고, 매스미디어를 어떻게 국어교육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공통교육과정의 국어교과에 방송을 비롯한 매스미디어 교육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효과적인 국어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기만 한가, 체계적 적용이 가능한가를 따져보아야 하고, 미디어 교육이 국어교육에 바람직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판단이 내려진다면 다양한 대중 매체들을 어떻게 국어교육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등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매체를 국어교육에 수용하되, 대중매체의 언어나 언어사용 원리를 중심으로 다루고, 매체 일반에 대한 교육이나 매체에서 다루는 담론 내용들에 대해서는 국어 교과 외의 영역에서 다루거나 다루더라도 그 비중이나 중요도를 낮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현장에서 다룰 방송매체교육은 현장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 대상과 학습 방법을 개발해서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방송매체 교육을 국어교육에 도입한다면 방송언어에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라디오 방송의 경우에도 라디오 방송언어나 그 사용의 원리 등을 국어교과에서 익히고, 학생들이 라디오 방송을 직접 듣고 라디오 방송에 참여하며, 나아

가서 라디오 방송 제작 등을 해 보면서 다양한 언어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은 반드시 국어교과에서만 다루어야 한다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통합 교과 수업이나 재량활동,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다룰 수 있도록 개방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라디오 방송을 비롯한 대중매체에 대한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어교육에서 다루어지는 매체교육은 그 대중매체들 전반에 관한 교육, 나아가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다양한 의미의 생성과 해석 과정 전반을 다루는 교육이 아니라 대중매체 언어와 언어사용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서 대중매체와 국어교육,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 라디오 방송언어와 국어교육으로 층위를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라디오 방송과 국어교육의 관계를 세우고, 라디오 방송 이해 교육, 라디오 방송 언어 이해 교육, 라디오방송 체험교육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한다.

【핵심어】 대중매체교육, 방송언어교육, 라디오방송, 국어교육, 방송언어, 방송언어교육

〈Abstract〉

**A study for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with the language on radio broadcasting**

Lee, Chang-deo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effective way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related with the language on the radio broadcastings in South Korea. Recently, the opinion that 'media literacy'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s of the Curriculum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is getting power of persuasion among scholar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However, it needs to examine carefully to include mass media education into Korean language education in terms of effectiveness and identity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This paper suggests that media education, especially radio program education, has to be dealt at the low level involved only with the language being used in radio broadcasting. And that, media literacy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should be an education focusing on the principles which can explain various aspects of broadcasting language usages. It is argued that media literacy education could be effectively performed not only in the Korean language classes but in the integrated subjects classes such as ethics and language classes, sociology and language classes etc...

In chapter two, it is argued for the significance of the role of broadcasting language in language education. The areas of

broadcasting language education involved with language education in schools can be divided by many criteria, for instance, by the sorts of broadcasting network, characters of programmes, and purposes of education etc.. This paper suggests a series of categories of broadcasting language education by each criteria.

In the following chapter, this article classifies the various ways to adopt radio broadcasting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Being divided into layers, radio broadcasting education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can be sorted into education to understand radio broadcasting system, education to learn radio broadcasting language, and education to experience radio broadcasting. And each layer gives concrete shapes of classes teaching and training broadcasting language and its principles of usage.

【key word】 broadcasting language education, radio broadcasting language, mass media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